

# “나는 어딜가서 만나든 사람이 좋더라”



나는 사람이 좋더라  
연등국제선원 역음  
장경각 펴냄  
1만5천원

“유럽에서의 불교학과 포교현황이 신기하게 다가왔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안에 ‘Pali text society’가 오래전 결성돼 원시경전의 첫 번째로 짚는 아함경전이 오(五)아함으로 출판됐다는 것과 독일은 동방성서학회가 만들어졌고, 이곳 스리랑카 옛 성도(聖都) 캔디서는 불교출판학회(B.P.S)가 만들어져 독일 사람들이 상할리어, 산스크리트 사전을 편찬했음을 목격하고 원명스님과 나는 너무나 놀랐다.”

(장진 백련사 주지)

“어느 날 나에게 앨범정리를 하자며 세계 여러 나라서 찍은 사진들을 보던 중 스님은 나는 어딜 가든 사람이 좋더라 라고 말씀하셨다. 스님은 티베트 어느 고원 사람들의 큰 웃음을 보고 계셨다. 웬지 나는 그 후로 그 말이 늘 가슴속에 맺혔었다. 평소 말씀이 많지 않던 스님께 들으라니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다. 해인사를 떠나 도심 속에 사시던 스님이 그제야 이해가 됐다. 출가 후 선방서 10년이 넘도록 오롯이 정진하시던 분이 불현 듯이 국제포교를 하겠다고 산문을 나오셨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스님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이 좋다’는 스님 말씀은 모든 의문점들을 없애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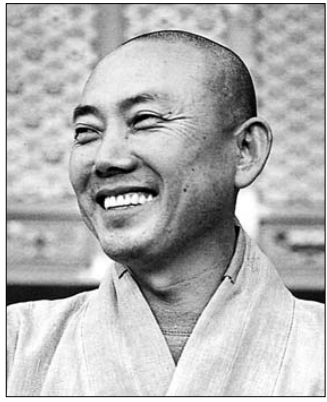
(비로자나국제선원장)

국제포교의 스승이라 일컫는 실상당 원명 스님의 추모집이 출간됐다. 원명 스님은 성철스님 상좌로 강화도에 연등국제선원을 만들어 국제포교를 해왔다. 전통사찰인 해인사 백련암 전통과는 다르게 국제포교의 길을 가던 원명 스님은 외국인 및 국내의 모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 선방인 연등국제선원을 열었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템플스테이의 선구자인 셈이다. 하지만 선원 설립 5년 만에 외국인 제자 승려들을 남겨두고 2003년 열반 했다. 올해는 스님의 열반 10주기가 된다. 이에 연등국제선원에서는 스님이 남긴 법문 및 재외불자와 국내 불자들의 원고를 모아 추모집을 발간했다.

외국 유학을 하면서 1천년 전통을 지닌 한국불교의 흔적이 한 줄도 없어 불교의 해와 포교를 결심한 원명 스님.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은사인 성철 스님이 크게 존경받는 유명한 선지식이지만, 그 흔한 법문집 한 권 없는 것이 안타까워 수좌의 길을 버리고 포교의 길을 택했다.

이 책에는 사진으로 보는 원명 스님 행장과 행자 및 수좌 시절, 그리고 유학 시절의 일화 등이 소개돼 있다. 이어 도반이던 前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을 비롯해 강진 백련사 주지 여연 스님과 백련암 문도인 원택



원명 스님

## 국제포교의 대부 원명 스님 추모집 17명 스님과 20여 인연불자 글 소개 별안 출가자 영어로 추모글 적어

스님 등 17명 스님과 20여 인연 불자의 글이 소개됐다. 특히 별안 출가자들인 싱가포르 관음선림 주지 계문 스님, 스위스 법계사 주지 무진 스님, 지광 스님 등은 영어로 된 추모글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원명 스님이 살아 생전에 불교 성지를 순례하며 연재한 순례기와 세계 각처에서 추모글들을 스님의 해와 포교 원력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1950년 경북 고령서 태어난 원명 스님은 고교 시절 불교학생회 회장을 맡으며 불가와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밀양 표충사에서

수련회를 하는 등 신생활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였다.

이후 대학 입시를 앞두고 표충사를 다시 찾았는데 한 스님이 “학생, 대학 공부는 해서 뭐할 러구?”하는 질문에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한다.

원명 스님은 이후 당시 해인총림 방장 성철 스님을 찾아가 행자 생활을 시작했다. 참선을 통한 견성성불에 뜻을 둔 스님은 선방으로 달려갔다. 선방서 대중 생활을 통해 기초가 있어야 참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백련암으로 가 경전 공부한 뒤 해인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서 12안거를 성만한다.

외국에도 능통 했던 원명 스님은 이후 해외 포교에 매진해 1994년에는 싱가포르 불자 모임 결성과 인도네시아 해인사 포교원 개원, 모스크바 달마사 개원, 우크라이나 불심사 개원, 크르키즈스탄 보리사 개원, 방글라데시 원명사 건립 등 다양한 해외포교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스님이 국제포교의 대부라고 불리는 이유다.

해인사 백련암서 성철 스님을 오랫동안 시봉한 원택 스님은 “원명 스님이 가고 없는 절에서 외국인 제자 스님들과 불자들이 함께 뜻을 내 추모집을 내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라며, “원명 스님이 한국불교를 알리던 뜻을 이어받아 아직도 큰 진전이 없는 한국불교 전파에 좀 더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kimj4217@hyunbul.com

# 세친보살 27단위의 의거한 새로운 금강경 해설 ‘눈길’

## 원명대사의 금강경 강의

원명 권오 지음 | 박경규 역주 | 운주사 펴냄  
1만6천원



《금강경》은 불교의 반야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부처님의 보리법이 이 경으로부터 좇아 나온다”고 찬탄하는 경전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수지·독송하고 연설해왔다. 더욱이 한국불교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소의경전으로 더욱 중시되고 있으며, 현대에도 많은 불자들이 독송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만큼 경에 대한 번역서와 해설서도 다양하게 나와 있다. 그렇다면 이 책도 그 많은 금강경 해설서에 고만고만한 또 하나의 혹은 불리는 것은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책은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근세 중국불교의 대선지식으로서 약관의 나이에 화두참구로 활연대오하고, 경론의 강설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유명한 원명 권오 선사가 금강경을 강의한 것이다. 그가 강의한 여러 경전과 논서들은 중국불교사에서도 유래가 드물 정도로 그 범위가 방대하며, 철저하게 전통적 주석 방법에 의지하면서도 그 내용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적인 언어와 비유를 사용하여 불교에 기초 지식이 있는 이라면 누구나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로 유명하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중국과 대만에서는 그의 법문이 큰 권위와 명성이 지니고 있다.

그는 경론을 강의함에 있어 한 가지 중파나 교학을 고집하지 않고 반야, 가신, 원각, 정토 등 다양한 법문이 지닌 일미성과 회통성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하였다. 하나의 강의서만 보아도 그 안에서 불교 전체의 안목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 《금강경》 강의 역시 저자가 불교의 다양한 법문과 교리 전체의 핵심을 아우르는 안목에서 이루어진 강의이다.

이 책이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양나라 소명태자 이래 전통이 되어온 금강경의 32분 과판을 채택하지 않고, 경문의 뜻을 그대로 취하여 이를 과판의 기준으로 삼고 세밀하게 경을 분석함으로써 경에서 말하는 중지의 내용이 따라 쉽고도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금강경 주석에 대한 가장 이르고 정확한 해설로 정평이 나 있는 인도 세친보살의 27단위의 의거한 금강경을 해설하고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해설과는 완전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경을 해설함에 있어 천태, 화엄, 유식, 선, 정토 등 중국불교의 여러 경

전과 교학, 수행들을 망라하여 경전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천태의 일심삼관(一心三觀), 일경삼제(一境三諦)에 입각해 금강경의 반야행등과 중도실상을 드러낼 뿐 아니라, 역대 금강경 풀이 중 뛰어난 저술로 평가되는 《금강경파공론》(간정기) 《총론》 《금강해의》 등의 정화를 인용하여 경의 이해를 깊게 하였다. 또한 《황벽어록》을 적절히 소개함으로써 경에 나타난 심종(心宗)을 철저히 밝혔으며, 이와 더불어 종문(宗門)의 법화(法話)를 거시함으로써 최상종승을 선양한 점이 그렇다.

또한 《화엄경》 《법화경》 《능엄경》 등 대경과 《기신론》 《대지도론》 유식가의 제론 등 때문에 입각해 금강경을 풀이함으로써 반야부의 《금강경》을 원고 내지는 대승원돈교(大乘圓頓教)의 도리로 승화시킨 점이 특징이다. 이는 한국의 독자들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에서는 거의 접해보지 못한 금강경 풀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책이 지닌 뚜렷한 장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이 책은 도안과 경안을 함께 갖춘 대선지식의 금강경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해설서이다. 저자는 금강경을 단순히 반야부 경전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한 것이 아

## 현대적 언어와 비유 사용한 명강의 중국불교 경전 총 망라해 해석

니라, 대승불교의 중요한 경론과 각 종파의 경지들을 포괄, 회통시켜 풀이했다. 즉 선사상은 물론 천태, 화엄, 유식, 여래장, 정토사상까지도 금강경의 반야사상과 융합시킴으로써, 금강경을 불교의 방대한 교학과 수행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따라서 불교의 기초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거나, 심지어 불교에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금강경에서 말하는 내용과 불교 전체에서 지니는 위상과 의미를 좀 더 쉽고도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독자라면 누구나도 이 책을 통해 명쾌하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자 원명 권오 (圓瑛宏悟, 1878~1953)

중국 청말 민국초의 스님으로 법명은 권오(宏悟, 호는 도광(道光))이다. 1896년 19세에 복주 용천사로 출가, 이듬해 묘연 노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1898년부터 고승들을 두루 알현하고, 《능엄경》을 정밀 연구하면서 수행하여 활연히 깨달음을 얻어 입제종의 조사로 인정받았다. 1929년에는 태허 스님 등과 함께 1954년에 원명능엄정종학원을 운영하며 《능엄경》 강의를 담당했고, 1953년에는 중국불교협회의 제 1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 색채로 쓴 부처의 전생 행적, 자타카 이야기

## 아잔타 미술로 떠나는 불교 여행

하진희 지음 | 인문산책 펴냄 | 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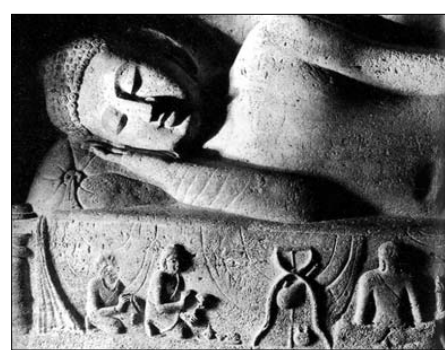


3000년 전 고대 인도의 아리아족은 브라만교(이후 힌두교로 계승됨)와 카스트(계급구조)를 통해 그들의 강고한 지배 체계를 만들었다. 노예계급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기원전 5세기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었던 싯다르타 왕자는 부귀영화를 버리고 구도의 길을 떠났고, 마침내 부처(깨달은 이)가 되었다.

부처가 계급 해방을 부르짖으며 불교를 일으켰을 때 노예계급은 비로소 자신들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의 평등사상과 자비심은 인간의 길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하였다. 이렇게 불교에 귀의한 이들은 부처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구도의 길을 떠났듯이 그들 또한 인생의 목적을 찾아 지혜의 길을 떠나게 된다. 그것은 정과 끝난으로 거대한 석산을 녹여내는 고행에 가까운 자기 현상이었다. 900여 년 동안 계속된 이 고행은 자기 자신을 녹여냄으로써 신을 만나고자 한 이들의 간절한 바람의 결과물로 아잔타 석굴을 탄생시켰다.

아잔타 석굴 벽화에는 25편의 자타카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책에는 상태가 비교적 우수한 16편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자타카(Jataka)는 기원전 4세기 팔리어로 쓰여진 모두 547편으로 구성된 부처의 전생 이야기로, 부처가 싯다르타 왕자로 태어나기 이전 부처의 보살로서 547번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이다. 글로 쓰여진 경전보다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색채로 쓴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아잔타 석굴의 부처님 열반상

부처가 인간의 모습, 반인반수, 때로는 동물의 모습 등으로 태어나서 실천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야기의 주제는 주로 삶의 지혜, 회생과 자비, 헌신과 사랑, 정의로운 삶, 금욕적 생활, 수행, 구원, 생명 존중, 우정, 효도, 마음의 평정 등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이야기는 부처의 한 생애에 대한 이야기로 부처가 보살로 태어난 수많은 전생 동안 실천한 자비의 행적이다.

현실은 언제나 가혹하고, 선은 언제나 악의 도전을 받게 된다. 인도인들은 현실을 극복하기를 바랐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길을 고민했다. 어떻게 선이 악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간답게 사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정의로운 삶일까?

“비둘기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보시한 시비왕” 편을 보면,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악은 결코 욕심을 내려놓을 줄 모르는 속성으로 인해 언제나 선에게 목숨을 요구한다. 이때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자비심은 결국 악의 자기 반성을 이끌어내고, 선은 비로소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사랑과 자비는 ‘모든 것을 주었을 때’, 즉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완성된다는 교훈이다.

아주 오래전 부처의 전생 행적을 통해 과연 인간의 길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책이다.

김주일 기자

## 공 고

### 종단명칭 변경

대한불교 삼보종  
(서울 종로구 평창동 523-61.  
총무원장 덕산)이

2013년 10월 25일부로  
(사)생활실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광)으로  
종단명칭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천비록 (하늘·땅·사람의 비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며 오직 이때 이시기에만 밝혀지는 하늘·땅·사람의 비밀 天秘錄!”

이 땅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神)들의 역사를 밝혔으며, 신(神)들로 인해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밝혔으며, 바른 신앙과 도를 찾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바른 신앙과 도의 길을 밝혀 놓았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신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그 누구라도 신과의 연결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지금은 자신을 지배하는 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와, 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로 나누는 시대임을 밝히고 있다.

도서구입문의 : ☎ 063)643-7285 (도서출판 대도대한)

교보문고/영풍문고/반디앤루니스/리브로/알라딘/에스24/철도문고/불광문고/대한서림/대동문고/중앙출판/세원출판/홍지서림/영광서점 등 전국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 인비록 (죽어서 가는 길)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하나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하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은 이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웹진 인비록 : http://www.dbblog.co.kr

##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 체내 노폐물이 빠져도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실법

동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 빙의 퇴마사례 생생하게 전하고 그 해결방법 밝혀 !!!

빙의에 걸리면 정신질환인 우울, 불안, 공포증, 또는 조울증, 정신분열 등 심인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괴로워한다. 심지어 요즘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망이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형 지음 / 신국문 / 319페이지 / 13,000원

이 책은 심인성질환의 치유와 퇴마의 권위자인 제형스님이 그간 치유했던 사례들을 담은 책이다. ※ 입금계좌 : 농협 552-01-047918 대한불교미륵정사

## 저자 직접 상담. 개인지도

1. 최면요법, 빙의퇴마 과정 (우울, 불안, 공포증 치유 및 전생과 미래를 본다)
2.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3. 기문둔갑, 성명학 과정
4. 2명 이상 지방출장 가능

예약상담 사주, 작명, 빙의퇴마, 심리상담  
빙의(신병) 출장 퇴마합니다.  
전화 011-772-4606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